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호 [루게 제22959호] 주제99 (2010)년 1월 7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레성강청년 2호 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완공단계에 들어선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황해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김경희동지, 장성택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토산군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일광동지와 건설지휘부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새해벽두에 자기들의 일터에서 맞이한 발전소건설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당장전 65 톤을 맞는 울해를 강성대

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빛내일 데 대한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발전소건설자들은 새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발전소의 건설자들은 레성강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판철하기 위한 치렬한 돌격전을 벌임으로써 1호발전소를 지난해에 조업한데 이어 2호발전소의 언제쌓기, 물길굴뚝기를 비롯한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고 지금 발전소건설을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있다.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일념에 불타는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는 드디어 자기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대소한의 강추위속에서 해저물뚱까지 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새해전투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이 비약하고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기상인양 산협을 가로지르며 하늘높이 지솟은 거창한 언제와 발전기실을 비롯한 만번대계의 건축물들을 보시고 황해북도내 인민들이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방대한 건설공사를 도자체의 힘으로 해낸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강조국건설에 기여할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아름찬 건설과제를 짧은 기간에 수행하면서도 침수구역 이주민들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훌륭히 건설하고 발전소주변의 토지정리까지 다 맡아한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주인다운 일본새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황해북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안고 비상한 애국열의와 창조력을 발휘한 결과 규모가 큰 또 하나의 발전소를 짧은 기간에 건설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스런 성과는 당과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위력과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인 발전소를 도자체의 힘으로 건설한다는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지만 도내 당 및 근로단체 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발동시켜 성과적으로 해냈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경험은 대중의 힘과 지혜를 옮겨 조직동원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우리 당사업방법의 진리성을 다시금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레성강청년 2호발전소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것만큼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완공 단계에 들어선 레성강청년 2호 발전소 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번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경제적인것이나 아니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므로 대규모수력 발전소들과 함께 중소형 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발전소의 덕을 빨리 보게 하자면 나머지공사를 짧은 시간안에 해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발전소준공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레성강발전소의 전망설계대로 앞으로 3호, 4호, 5호 발전소건설까지 완성하면 레성강을 종합적으로 리



이 일대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전소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와닥닥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 65돐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새

해전투에 돌입한 온 나라는 지금 활황산의 용암마냥 새창이 뚫어번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격동적인 시대의 숨결에 맞추어 모든 전선에서 대진공전을 파감히 벌려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세계적인 위업을 이룩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레성강발전소의 전체 건설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반복이 넘쳐나는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안겨 주시려고 눈길을 밝으며 정초부터 끊임없는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어버이장군님의 로고에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영광의 그날을 앞당겨올 충성의 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고 박기서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본사기자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자

함경북도, 황해북도, 강원도군중대회 진행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함경북도, 황해북도, 강원도군중대회가 4일과 5일에 진행되였다. 군중대회에는 지방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인물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나게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김책체첸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 제강소에서 주체철생산능력을 높이고 선철과 강철, 압연강제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무제한생산목표에서 채굴, 운반설비들에 만부하를 걸어 철강광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리원전기장개건공사를 다그쳐 생산을 부쩍 높이며 어량천 발전소 2단계건설을 다그쳐 끝냄으로써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 기여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와 기계공장들에서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CNC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공구혁명을 일으키며 첨단기계설비들을 많이 생산하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뜻있는 올해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려나갈 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야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릴수 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해말 김책체첸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새해전투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파감히 조직전개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군중대회에서는 홍석형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김책체첸합기업소 지배인 리희현,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장철근, 청진광산금속대학 학장 김용승,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송태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창건 65돐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대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뜻있는 올해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려나갈 열의에 넘쳐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군중대회에서는 리상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사리원방직공장 지배인 김신, 황주군 철도혁명농장 관리위원장 리광철, 도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리광철, 사리원공업대학 학장 리종우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에 도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천만민을 고무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도의 부하로 돌리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당면하여 새해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일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주체적인 육종체계가 서고 실리주의 원칙이 구현된 현대적인 축산, 양어생산기지가 현실에서 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1일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과 일본의 교도통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 경축음악회를 관람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지난해 12월 30일 체스코프제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 체스코프조선선현회의 인터넷공통 홈페이지 《조선-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선진체첸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여러 시간에 걸쳐 강철직장, 주체철직장, 정련직장을 비롯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기계개건정형과 생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이께서는 주체공업의 위용을 떨치며 거창하게 일떠선 주체철생산공정들과 정련로에서 불꽃을 날리며 방방은 주체철이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장쾌한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주체철에 의한 강철생산방법을 완전히 성공시키고 그 생산을 무한히 높여가고있는데 대하여 대단족을 표시하시였다.

이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성강로동계급의 충성심의 고귀한 결

정체인 주체강철을 크나큰 격정속에 보고 또 보시며 재래체첸합기업에 중지부를 찍고 드디어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면서 주체철생산을 위하여 그처럼 마음쓰시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주석께서 이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께서는 성강의 로동계급이 보수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짓부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주체철에 의한 제강법을 완성한것은 야금공업발전에 특기할 력사적인 사변이며 3차 핵시험성공보다 더 위대한 승리라고 하시면서 진지한 탐구와 고집이런 노력,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새 제강방법연구를 성공시킨 전체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빛나는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이께서는 성강의 로동계급이 성공시킨 주체철에 의한 강철생산 방법은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당을 받드는 참된 충신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위대한 기적이라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주체철연구에 참가한 전체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을 친히 평양에 초청해주시는

본사기자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 공동사설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민일보》 3일부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가 1일 공동으로 신년사설을 발표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조선의 립장은 일관하다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오늘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조미사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높이 나라들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조선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또한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리는것이 2010년의 총적인 투쟁방향이라고 하면서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

본사기자

【조선중앙통신】

선군혁명의 사상진지를 이들처럼 지키자

경성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해 9월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는 경성군을 찾으시어 여러 부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뜻깊은 이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인 가르침을 심장으로 새겨안은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선군혁명의 사상진지를 지키는 선군을 대고시대 당일군의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앞세워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며 승리적으로 완성해나가는 열쇠가 있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일군들이 《강사》가 되어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에서 한몫을 맡아하도록 조직정시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책임비서 고에심동무는 자신부터 혁명사적지를 통한 교양사업에 앞장섰다. 그가 엄보혁명사적지의 보호관과 줄다리에 대

《강사》활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모든 일군들이 대중발동의 모습을 찾아내고 우리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수 있게 준비된 것이다. 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또한 혁명사적부분의 강사들을 전담성있게 키우고 그들이 책임을 다하게 하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우선 강사들의 안목부터 넓혀주었다. 이를 위해 혁명사적부분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역사지구를 비롯하여 도안의 혁명사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빼집없이 돌아보도록 하였다.

경성혁명사적관 관장 김성일 동무와 김영심, 임복순동무를 비롯한 강사들은 여러 단위를 참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역사지구 혁명사적지들에서 본래 나날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 그곳 강사들이 자라나는 세 세대들에게 조선혁명의 명맥이며 파출기인 백두의 혁명정통을 어떻게 새겨주고있으며 항일의 정수들을 어떻게 지켜가고있는가를 하는것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강사들이 현실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자기들의 강의활동과 결부시켜보게 하고 단위의 특성에 맞게 해설강의의 형식과 방법

을 혁신하도록 이끌어주는 사업도 잘하였다. 그 과정에 강사들의 강의는 철저히 항일유격대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 감화력있는 예술선동의 형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진행할 때 그 실효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 그것은 곧 실천투쟁속에서 강사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한 출발점으로 되었다. 영계한자공장에서 진행된 이동강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단위에 나간 강사들은 군에 갔을때는 철세위인들의 혁명사적내용을 시에 담아 읊어주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때로는 손꼽금도 타고 노래도 부르면서 강의를 인상깊게 진행하였다.

실효는 대단하였다. 여기에는 한 강의를 위해 예술영화 《백두의 붉은눈》에 대한 실효모임도 조직하고 악기도 능숙하게 다루게 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 준비사업을 면밀하게 하도록 이끌어준 일군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지금 군당위원회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에게 가르쳐주신대로라면 모든 일이 잘된다든 철의 신념을 간직하고 선군혁명의 사상진지를 더욱 굳건히 지켜가고있다.

박기서동지의 서거에 대한 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던 조선인민군 차수 박기서동지는 금성심근경색으로 주제99 (2010)년 1월 4일 20시에 84살을 일기로 예석하게도 서거하였다.

박기서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품속에서 인민군대의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자라나 선군혁명위원의 승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당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빈민민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난과 열사속에 살아오던 박기서동지는 조국의 해방과 함께 할친 삶을 누리게 되었으며 정규무력건설의 첫시기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총대와 함께 한생을 빛내이며 조국보위와 혁명투쟁의 강

참가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오랜 기간 인민군대의 중요직에서 사업하면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자위적인 군사훈련과 방비를 관철하는데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쳤다.

동지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생처사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동지는 조국과 혁명앞에 세운 공로로 하여 공화국영웅장호와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비롯한 많은 국가표창을 수여 받았다.

동지는 우리 당의 주제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추실하였다. 박기서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주제99 (2010)년 1월 4일

2010년 1월 4일 금요일 10월의 대축전을 빛내일 철석의 의지로

승고한 뜻 받들어갈 불같은 열의

경공업부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인민생활문제를 하루빨리 풀어 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인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소를 받아안은 경공업부 일군들이 장대나라를 단단히 하고 새해 전투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강성대국에서 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의지가 뜨겁게 맥박치고있는 공동시설의 구덩이에서는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경공업부 일군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아버이수평년의 율흔을 빛나게 관찰하고 인민들의 친만까지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우리 당의 승고한 뜻을 실현으로 받들자.

이런 신념의 맹세를 안고

새해 첫 전투에 펼쳐나선 경공업부 일군들이다. 이들은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은 결정적으로 늘어 인민들이 실사기를 불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전을 펴고 들끓는 생산현장에서 달려나갈 전투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뜻깊은 올해의 첫걸음부터 들끓는 기수가 되고 전진의 나팔수가 되고있는 일군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공업공장의 생산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강성대국건설전진의 장쾌한 북소리인장작소리, 기계적 맥박치고있는 평양방직공장의 들끓는 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경공업성의 책임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비중을 높인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 모든 단위에서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그 질을 높여 10월의 대축전을 빛나게

작을 해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에서 획기적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신심있게 이야기하였다. 지난해에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평양방직공장과 신의주 신발공장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경공업공장이든 현대적으로 개진되어 우월한 생산의 동음을 울렸던가. 현대화의 동음속에서 제품의 질도 훨씬 개선되었다.

인민이 좋아하고 인민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절고고를 위한 투쟁의 준비를 일으키나가려는 것이 경공업부에서 올해에 내세운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생산지휘를 맡아보는 경공업부에서는 뜻깊은 올해에 모든 경공업공

농촌지원사업을 힘있게

량강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세해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량강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촌지원사업을 잘하고있다. 도에서는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많은 량의 질 좋은 거름을 감자산지들에 집중적으로 실어 보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감자농사에서 량강도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에서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데 대한 공동시설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새해농사차비에 펼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도와주도록 조직정시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새해정초부터 감자산지들을 로력으로, 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또한 질 좋은 거름을 감자산지들에 제때에 실어 보내기 위한 수송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였다. 각급기관 일군들은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모든 농업인들이 농촌지원사업에 힘있게 뛰어들도록 하였다.

도급, 시급마다 일군들은 성의껏 마련한 거름을 자동차에 싣고 감자산지들에 나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대비약을 이룩하기 위해 펼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하여주었다.

농촌지원사업에서는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농공맹위원회, 중앙은정 량강도지정, 백두산들꽃공공공장, 해산기초식품

공장이 앞장서고있다. 해산지에서는 공장, 기업소들과 동, 인민들에서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감자산지들에 보내주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일군들을 아예 내려보내며 조직사업을 짜고들게 하였다. 공장, 기업소, 동, 인민들에서 내려간 일군은 예비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농촌지원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해산지에서는 너댓명의 모든 분야에서 질 좋은 거름을 마련하고있다.

시에서는 거름을 제때에 실어내기 위한 로력조직, 수송조직들을 빈틈없이 하고 자동차들을 거름을 실어 주변 농촌들에 보내주고있다.

대동단과 홍용, 풍서, 감산, 백암, 삼수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미리부터 착실한 마련한 많은 거름을 농촌에 보내주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질 좋은 제품들이 쏟아진다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새해공동시설을 받들고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여러가지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열중하였다.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을 전향적, 전국적인 힘을 집중하는 흥공세의 해로 정해준 우리 당의 승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은 새해의 첫 전투에서부터 세수비누, 치약, 화장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소비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질을 높여야 인민들에게 윤락하고 분명한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줄 수 있습니다.》

새해공동시설을 받아안은 공장의 일군들은 당창건 65돐을 로력적으로 받들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펴기 위하여 원료보급을 앞세우기 위

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공장에서는 지금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비누와 치약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에 의하여 마련된 현대적인 생산공정에서 일하고있는 비누직장과 치약직장의 근로자, 기술자들은 올해에도 수요자들에서 인기를 끄는 질 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첫 전투에서부터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비누생산의 실험공정을 담당한 견학작업반원들은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잘하여 질 좋은 비누원료를 생산보장하고있다.

치약직장의 근로자들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제품을 하나하나에 자기들의 깨끗한 향기를 바쳐가고있다. 특히 배합작업반원들은 자기들이 치약의 질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10월의 대축전을 빛내일 철석의 의지로

서해별방농촌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차비를 잘하는 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 데 대한 새해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서해별방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뜨거운 열의로 하여 농사차비에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총합된 자로에 의하면 연안군과 안악군, 속천군, 룡천군에서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며칠이 지나면 같은 시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각종 유기질비료를 밭에 인벳을 비롯하여 서해별방농촌에서 흠뻑이 터 트림산다, 기를들이어내기가 당

면한 농사차비에 령향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서해별방지대 농촌단위에서는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에 세밀한 품이 많이 들고는 거름생산과 고평과, 거름실어내기 곁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정시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 주신 본보기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해농사차비에 시를 기발을 들었다. 지난해 농사를 잘 지어 농장을 찻은 일군들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사례를 이 미복합농장, 태천군 은총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새로운 천리마이다. 《희천수도》로 드세한 공격전을 벌려 농업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거름실어내기와 고평과 전투에서 본래를 보이고있다.

다. 현지에 나간 일군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전투지휘를 능동적으로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고 대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룡천군 신암협동농장, 세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일군들이 첫 전투작전을 잘하고 흠뻑비료를 생산을 비롯한 당면한 영농투쟁을 힘있게 조직하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본보기농장으로 내세워주신 농장에서 살며시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해농사차비에 펼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한층의 흠뻑비료를 생산해도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다.

황해남도과 평안남도, 남

축산이 자 거름생산

태천군 취흥협동농장에서

제8작업반만 보더라도 20여마리의 소가 있다. 이 작업반만이 아니다. 농장안의 다른 작업반마다에도 10~20마리의 소가 있다. 소가 많은 것만큼 농사일에 효과적 리용되는 것은 물론 년중 거름생산도 중단되지 않고있다.

농장에서는 소만 많이 기르는 것이 아니다. 작업반, 농장원세대마다 돼지, 염소, 토끼, 닭, 오리, 개사니 등 여러가지 짐승들을 기르고 있다. 따라서 년중 거름생산이 중단되지 않으며 결국 거름생산이 늘어 부침짚의 지력이 높아지고 더는 자란 일이 없다.

모든 일이 그러한 것처럼 축산도 대중이 자각적으로 펼쳐나선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이 농장에서는 지금처럼 짐승들이 많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놓고 농장일군은 제8작업반에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할 것을 결심하였다. 한것은 이 작업반에서는 많은 소를 농사일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을뿐아니라 농장원들도 가정에서 여러가지 짐승들을 기르면서 년중 거름생산을 중단없이 하고있기 때문이다.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던 날이었다. 규모있던 푸르른 짐승우물들과 수직마리의 소와 돼지 등 여러가지 짐승들을 많이 기르자는데 있었지만 기본은 축산이지 거름생산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자는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여주기사업의 필요는 대단히 컸다.

얼마후 농장안의 모든 작업반에서 짐승들을 많이 기르기 위한 문제가 토의된 데 이어 축산이자들이 건설 또는 보수되고 모든 작업반, 농장원세대들에서 짐승수마리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그리하여 축산에서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었다.

날이 갈수록 농장안의 모든 작업반, 농장원세대들이 짐승수마리가 계속 늘어나 거름생산이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하여 뜻깊은 올해에 로진마다 질 좋은 거름을 더 많이 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 농장의 현실은 농사를 잘 짓자면 농사와 축산을 배합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 여러가지 짐승들을 많이 길러 거름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공동시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가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가자

겨레를 자주통일애로 부르는 애국의 가치

성스러운 애국의 가치가 우리의 앞길에 세차게 나뭇기며 온 겨레를 자주통일의 길로 부르짖고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가치》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

당부,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이 전투적구호는 우리 겨레의 지향과 의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총적방향과 그 실천방도를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구호는 해내의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으며 6.15 통일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지금 통일애국의 구호에 접한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은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자주통일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년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는 활 기치는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 6.15 통일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애국의 가치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가장 절박하게 나서는 과업은 하루빨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외세에 의해 분열의 비극을 65년 동안이나 강요당하고있는 민족은 세계에 오직 하나, 우리 민족밖에 없다. 차별은 우리 민족의 통일적합성을 가로막고있으며 온 겨레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예로부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

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겨레가 오늘 외세에 의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분열의 비극을 겪고있는것은 참을 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다. 조국통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조선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의지와 의지이다.

조선민족 누구도 조국통일을 떠나 참다는 애국에 대하여 혼잡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들로 갈라져 있어서는 언제 가도 공동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오직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는 길만이 단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 애국의 길이다. 통일은 애국이고 민족적비극이며 불행이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따라 전진하는 6.15 통일시대이다.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반세기이상 얼어붙었던 불분과 대결의 장벽이 봄날의 눈썹이마냥 무너져내리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해나가는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지난 10년간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자기의 민족본체를 일깨우는 자기의 손을 해결할수 있는 총명한 능력을 가지고있는 슬기롭고 명명한 민족이라는것을 다시금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현실은 온 겨레로 하여금 가장 정당한 민족공공의 통일대강인 북남공동선언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여기에 애국의 가치로서 공동사설의 구호가 가지는 생명력이 있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는 현시기 조국통일운동앞에 나선 과업과 방도들을 명백하게 밝히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는 활 투쟁의 기치는 다름아닌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민족자주와 외세의존,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진정으로 자주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역하거나 그 리행을 반대해나설 리유와 조건이 없다. 자주통일의 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지키려고 성실히 리행해나가는 여기에 겨레의 숙연인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근반담보가 있다.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이며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다. 자주를 떠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이란 있을수 없다.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손을 맞잡고나가야 평화도 옹고 통일과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반민권의 력사와 문화와 자항하는 우리 민족은 마땅히 하나의 통일국가에서 살아가야 하며 또 살아갈수 있다는것이 온 겨레의 화고부흥한 필망이고 관념이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는 온 겨레를 자주통일을 위한 가족적투쟁으로 부르는 단결의 가치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해줄수 없다.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주체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며 온 민족의 단결에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민족성원들, 각당, 각과, 각계각층이 북남공동선언의 가치에 《우리 민족끼리》 정신으

로 굳게 단결할 때에만 조국통일의 주체가 강화되고 그 위력도 비상히 높아진다.

6.15 통일시대에 역행하는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으며 그것은 온 겨레로 하여금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겨레는 그 극복에 있던 남에 있던 해외에 있던 그리고 어떤 계급, 계층에 속해있건 관계없이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할수 있는 민족적의무를 지니고있다. 자주통일시대에 사는 온 겨레는 민족의 자주적존엄과 무궁한 번영이 자기몸에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민족끼리》가치에 하나로 뭉쳐 통일운동을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진철 조선민족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가치에 힘있게 단결하여 가족적으로 떨쳐나설 때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도, 시대에 역행하는 한중도 못되는 사대매국세력의 반동일책동도 배를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북남공동선언의 가치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때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구호는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년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만당에서 30년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모든 민족성원들이 통일의 길에 뚜렷한 애국의 자욱을 남기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참으로 공동사설의 구호는 온 겨레를 성스러운 자주통일위업수행으로 부르는 애국의 가치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동사설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을 향하여 신심도높이 전진해나가기 합력이다. 최 철 순

민족 단합을 강화할 때

당부,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설은 조국통일위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부르짖고있다. 북남관계와 통일위업의 새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진민족적인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우리 겨레가 걸어야 할 참다운 애국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사는 삶이 참다운 애국의 삶이고 어떻게 버텨내는 생이 력사와 겨레의 심장속에서 길이 남는 생으로 되는 것인가.

시대와 현실이 제기하는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절세의 위인의 고귀한 명언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되고 민족대단결을 저해하는 사람은 매국노로 된다.》

민족분열이 60여년이 넘도록 지속되고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통일위업을 한결같이 떨쳐나서는것은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다.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가 저애하는가에 따라 애국자와 매국노가 갈라진다는 경계하는 장군님의 명언은 조국통일선에서 민족대단결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대한 가장 정확한 해명여 기초하여 우리 겨레가

로, 우리 나라의 만민이 부러워하는 통일강대국으로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오늘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절박한 과제는 없다. 민족대단결이 자 통일이고 애국이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미룰수 없는 급선무이며 그 길에 한몸바치는것이야말로 가장 값있는 삶으로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올해공동사설에서는 북남공동선언의 가치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호소했었다.

조선사람이라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아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위해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 당파와 소속, 정경과 신앙,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그리고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선사람 누구든 민족단합의 대하에 뛰어넘어야 한다. 반세기이상의 분열로 인한 차이가 만만치 않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공고화된 민족의 공동성보다 훨씬 중요하고 모든것을 지향시켜야 한다.

온 겨레는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하는 명언에 맞는 것,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와 통일운동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이룩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은 정 철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하여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기자회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지부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주제99(2010)년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사설에 즈음하여 발표된 공동사설에 남부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올해는 력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0년이 되는 해이다.

6.15 공동선언의 발표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었다.

공동선언의 가치따라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열리고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일찍이 볼수 없었던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6.15 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고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하여온 지난 10년간은 공동선언들이 가장 정당한 통일대강이라는것을 밝혀져있다.

남부의 애국민중은 공동사설을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으며 올해에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경강차지에서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북과의 대결수도에 계속 매달리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이반당파의 책동을 저지하고 탄식지나갈 결의를 반영한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공동사설에는 민족공공의 리의를 첫치러야 하고 화해와 도모하며 계층들의 배양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동해나갈때 대한 문제가 밝혀져있다.

남부의 애국민중은 민족의 공리공평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칙, 제도장치를 철폐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은 새해공동사설에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위업수행의 원칙적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공동사설에는 《북남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갈 것을 확정하였다.》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선것을 호소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 리념과 1일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아래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지난해 북의 주동적이며 대법한 조치들로 하여 남북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우리 민족의 반미반전투쟁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의 가치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가 제시되어있다. 통일에 대한 겨레의 념은이 반영되어 있는 이 구호는 온 민족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남부의 애국민중은 공동사설을 열렬히 지지환영하고있으며 올해에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경강차지에서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와 결탁하여 북과의 대결수도에 계속 매달리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이반당파의 책동을 저지하고 탄식지나갈 결의를 반영한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공동사설에는 민족공공의 리의를 첫치러야 하고 화해와 도모하며 계층들의 배양과 접촉을 통하여 협력사업을 추동해나갈때 대한 문제가 밝혀져있다.

남부의 애국민중은 민족의 공리공평을 위한 사업을 저해하는 온갖 법칙, 제도장치를 철폐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책동은 새해공동사설에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통일위업수행의 원칙적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공동사설에는 《북남공동선언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갈 것을 확정하였다.》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 나선것을 호소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 리념과 1일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아래 자주통일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지난해 북의 주동적이며 대법한 조치들로 하여 남북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우리 민족의 반미반전투쟁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 공동선언 발표

악랄하지만 공동선언들을 리행하여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절대로 꺾을수 없다.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조국통일부분 과업들은 민족성원 모두가 확고히 들어키고나가야 할 지침으로 된다.

온 겨레는 오늘 편대협력을 강화하여 통일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는 열의에 넘

제아스트랄리아공조전국련합회 성명

제아스트랄리아공조전국련합회가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하여 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혁명적대교조의 위대한 새 력사를 창조준 승리의 금지를 드높게 안겨주는 새해공동사설 《당찬된 65년을 맞은 올해에 다시한번 성공과 노영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를 열렬히 지지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난해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에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간 데 대해 성명은 언급하였다.

성명은 올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립 65주년과 조국해방 65년을 맞는 뜻깊은 해

이 며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발표 10년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

모든 해외동포들이 한마음한 뜻이 되어 《북남공동선언》의 가치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쳐며 가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해나갈 수 있는 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제아스트랄리아공조전국련합회가 조국의 강성대국건설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은 시대의 부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6.15 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합니다.》

당부,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설의 애국적호소에 호응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기 위한 투쟁에 각광하고 리행될수 있는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위대한 통일대행진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였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이나 남이 어느 일방의 요구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것이 결코 아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외세로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강령으로서 북남공동의 민족적합의를 고수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은 우리 겨레가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기 위한 투쟁적으로 리행될수 있고 온 생활력도 담보되게 된다. 원래 조국통일운동자라는 본질에 있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벌려나가는 한 단결의 리행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통일운동방향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며 북남공동사설에서는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해나갈 수 있는 해라고 강조했다.

본사기자

《새해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새해예산안》은 민생예산 대 4대강예산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대다수 여론이 반대하는 《대운회계법》의 공약이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추진해야 하는 《대운회계법》은 경제성회과 성과도 없는데다 환경을 파괴하고 술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등 문제점이 많이 인민들의 한결같은 유탄대박을 받았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여론의 뜻을 맞고 휴지장이 된 《대운회계법》을 철회할 대신 기기에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간판을 슬쩍 바꾸어달고 이어 추진시키려 한다고 모조리를 써왔다. 당국이 《4대강정비사업》을 《한라당》과 《홍수피해방지》,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위기극복대책》이라고 요란하게 광고하고있지만 그 속심은 어떻게 하나 저들의 입기에 《대운회계법》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남조선 《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사가 자신이 《메일 여론의 반대론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당국의 암시를 받은 사실을 고백하면서 《4대강정비계획을 명백히 대운회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4대강정비사업》이 《대운회계법》과 동일한 것이지만 《대운회계법》을 추진하고있다고 폭로한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었다.

이런 《한라당》이 《대운회계법》을 철회할 대신 기기에 《4대강정비사업》이라고 요란하게 광고하고있지만 그 속심은 어떻게 하나 저들의 입기에 《대운회계법》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남조선 《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사가 자신이 《메일 여론의 반대론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당국의 암시를 받은 사실을 고백하면서 《4대강정비계획을 명백히 대운회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4대강정비사업》이 《대운회계법》과 동일한 것이지만 《대운회계법》을 추진하고있다고 폭로한 사실이 그것

이런 《한라당》이 《대운회계법》을 철회할 대신 기기에 《4대강정비사업》이라고 요란하게 광고하고있지만 그 속심은 어떻게 하나 저들의 입기에 《대운회계법》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남조선 《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사가 자신이 《메일 여론의 반대론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당국의 암시를 받은 사실을 고백하면서 《4대강정비계획을 명백히 대운회계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4대강정비사업》이 《대운회계법》과 동일한 것이지만 《대운회계법》을 추진하고있다고 폭로한 사실이 그것

처럼 서로가 신뢰하고 단합하면서 협력과 교류로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해나간다면 자주통일, 평화번영은 이룩되는 것이다.

오늘날 북과 남이 서로 반목 질시해야 할 리유는 어디에도 없다. 외세로 인하여 생겨난 아닌 남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공공의 이익인것이며 반민권의 유구한 민족사를 편히 밟아오는 우리 단일민족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도 보잘것 없는 것이다.

외세의 민족분열정책을 옹호하여 조국통일의 전진도 상에 난관과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 겨레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추장하는것은 그 어떤 주인의 주장이나 정략에 따른것이 아닌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생활적요구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달라지는 실수 없는 통일의 길을 따라 흐르는 이 거대한 대세의 흐름, 겨레의 요구를

어떤 사람도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 겨레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추장하는것은 그 어떤 주인의 주장이나 정략에 따른것이 아닌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생활적요구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달라지는 실수 없는 통일의 길을 따라 흐르는 이 거대한 대세의 흐름, 겨레의 요구를

어떤 사람도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 겨레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추장하는것은 그 어떤 주인의 주장이나 정략에 따른것이 아닌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생활적요구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달라지는 실수 없는 통일의 길을 따라 흐르는 이 거대한 대세의 흐름, 겨레의 요구를

어떤 사람도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 겨레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추장하는것은 그 어떤 주인의 주장이나 정략에 따른것이 아닌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생활적요구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달라지는 실수 없는 통일의 길을 따라 흐르는 이 거대한 대세의 흐름, 겨레의 요구를

어떤 사람도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박철 준

어떤 사람도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 겨레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추장하는것은 그 어떤 주인의 주장이나 정략에 따른것이 아닌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생활적요구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달라지는 실수 없는 통일의 길을 따라 흐르는 이 거대한 대세의 흐름, 겨레의 요구를

어떤 사람도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 겨레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추장하는것은 그 어떤 주인의 주장이나 정략에 따른것이 아닌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생활적요구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달라지는 실수 없는 통일의 길을 따라 흐르는 이 거대한 대세의 흐름, 겨레의 요구를

어떤 사람도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 겨레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추장하는것은 그 어떤 주인의 주장이나 정략에 따른것이 아닌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생활적요구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달라지는 실수 없는 통일의 길을 따라 흐르는 이 거대한 대세의 흐름, 겨레의 요구를

어떤 사람도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 겨레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추장하는것은 그 어떤 주인의 주장이나 정략에 따른것이 아닌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생활적요구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달라지는 실수 없는 통일의 길을 따라 흐르는 이 거대한 대세의 흐름, 겨레의 요구를

어떤 사람도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지금 우리 겨레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추장하는것은 그 어떤 주인의 주장이나 정략에 따른것이 아닌 민족성원 개개인의 자주적 운명개척을 위한 생활적요구로부터 출발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달라지는 실수 없는 통일의 길을 따라 흐르는 이 거대한 대세의 흐름, 겨레의 요구를

어떤 사람도 시련이 막아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겨레는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조국통일을 열망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한결같이 조국통일을 바라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것은 누구도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시대적 부름은 결코 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